

Present Conditions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School Libraries of the Provinces and the Cities of Korea

特 輯

各市·道別 學校圖書館 運營實態와 問題點

차 례

- I. 京畿道の 學校圖書館 —玄 源 明—
- II. 忠淸南道の 學校圖書館 —權 漢 遠—
- III. 全羅北道の 學校圖書館 —田 俊 燮—
- IV. 全羅南道の 學校圖書館 —崔 兌 定—

I. 京畿道の 學校圖書館

玄 源明(東仁川高等學校 校監)

1. 序 言

解放後 30年間に 우리는 엄청난 變化를 보고 있으며 또 그 變化의 速度가 견잡을 수 없이 빠르다는 것을 實感있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 變化의 速度는 더욱 加速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豫測할 수 있다. 그래서 未來學者들 사이에는 “이제 未來는 옛날의 未來와는 같지 않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이제 未來는 옛未來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길게 다가 온다는 말이다. 이러한 일들은 가까운 將來에 豫想되는 것의 모든 社會變動의 指數가 加速度的인 上昇曲線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事實이다. 그 중에서 知識의 蓬창도 指數函數의 으로 爆發하고 있다. 知識傳達의 手段으로서의 圖書出版을 UNESCO統計에 의하여 보면 1968年度에 48萬 4千種이 出版되었는데 이 量은 13年前 보다 約 70% 增加하였다고 한다. 이같이 現在 變動의 피드스화를 制御하기 힘든 바로 오늘의 初中高等 學生들이 30年後 2천年後 이 社會의 中核의 役割을 담당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 社會는 工業以後社會(post-industrial society) 即 “四次産業” 또는 “知識産業”이 성하게 되게되었는데 이같은 社會變化와 知識增大에 對應할 수 있는 人間을 育成하기 爲하여 教育이 해야 할일이 무엇이나? 하는 問題는 現代教育이 갖는 큰 課題이다. 이 解決해야 할 課題中的의 하나가 百科知識主義學力이 아니라 轉移와 發展을 爲한 基本的 學力形成이 必要하리라는 것이 當然히 要請될 것이다. 그런데 이 要請은 問題解決을

爲하여 關聯된 情報를 能率的, 效果的으로 檢索해 내는 方法을 學習한다는 것, 即 學習하는 方法을 學習한다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한편 電波媒體의 亂舞속에서 反訓練(Counter-training)을 통해 바른 價値觀과 How to do에 關한 問題를 깊이 생각하여 自己充實과 自己完成을 爲한 理性的批判과 倫理的思考는 證書를 통한 思考의 고된 過程속에서만 얻어지게 된다는 것도 當然한 일이다.

이러한 것들은 可能性을 現實化하겠다는 意思決定의 知慧와 能力과 勇氣의 基本이며 이런 教育의 힘은 바람직한 學校圖書館을 통해서 育成될 수 있다는 信念에서 本道는 66年을 起點으로하여 學校圖書館育成을 爲한 初等學校 司書教師 實務講習이 始作되었다. 그러한 우리는 現在 位置에서 當面한 學校圖書館의 問題들을 냉혹하게 反省해보며 豫算과 施設이 不足하고 教師의 業務量이 많은 現實與件속에서 土着化시킬 수 있는 學校圖書館의 模索이 이루어져야 겠다.

2. 學校圖書館 設置 現況

(1) 發展의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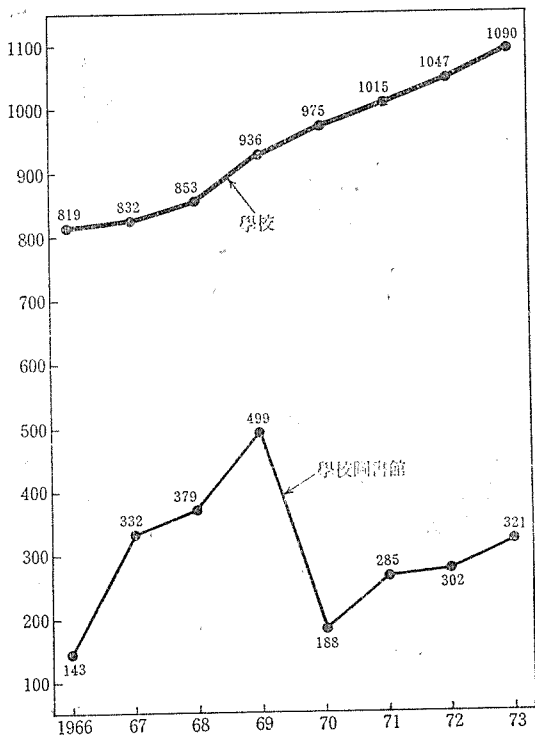
本道에서는 66年 4월에 國民學校 司書教師 117名에서 學校圖書館 短期講習을 實施하였다. 따라서 本道 學校圖書館發展을 爲한 行政的育成은 66年을 起點으로 생각하게 된다. 勿論 1959年 11월에 濟物浦高等學校의 大規模 學校圖書館의 設置 1960年 3月の 昌榮國民學校 圖書館 등은 우리나라 學校圖書館에 先驅의 役割을 擔當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學校圖書館들은 當時

學校圖書館의 年度別 對比

(1966~73)

年度別	館 數	閱覽席數	藏 書 數	豫 算 額
66	143	8, 133	206, 727	8, 799, 257
67	323	16, 873	482, 290	11, 911, 332
68	379	10, 160	709, 738	16, 634, 915
69	499	25, 433	949, 060	27, 530, 282
70	188	11, 133	586, 032	48, 088, 875
71	285	18, 456	786, 174	50, 790, 811
72	302	14, 656	834, 322	56, 572, 010
73	321	21, 901	949, 495	133, 538, 525

學校와 學校圖書館의 增加 추세



本道 學校 및 學生數(國·中等 包含)

年 度	學 校 數	學 生 數
66	819	644, 616
67	832	659, 444
68	853	677, 920
69	936	741, 907
70	975	781, 959
71	1, 015	825, 819
72	1, 047	854, 678
73	1, 090	890, 539

管理者의 바람직한 教育에의 追求의 執念의 結晶들이었다. 66년에 本道 學校圖書館數는 143館에 지나지 않았다. 그後 8年間に 約 2.3倍로 增館되었고 藏書數는 約 4.5倍로 增加하였다. 그러나 本道の 學校圖書館發展趨勢는 69年度에 499館으로 全體 學校數의 53.3%가 學校圖書館을 設置하였었던 것으로 되었다가 그後 減少된 것은 統計作成過程에서 國民學校에서 많이 保有하고 있었던 學級文庫를 除外한 것에서 연유된 것이다.

73年度의 學校圖書館 設置率은 約 35%로 60%以上の 學校가 學校圖書館의 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學生 1人當 藏書量은 1.0卷에 不過하고 圖書館運營費는 1人當 149원에 不過하다. 이러한 實情은 讀書不在라는 風土에 더욱 深刻한 問題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2) 平準化에 따른 學校圖書館

1968年 7월에 公布된 '中學校無試驗制度는 우리나라 教育의 一大 轉換點을 갖어왔으며 이에 따른 72年末에 一段落된 中學校 平準化問題는 우리나라 教育施設의 轉機를 마련하게 되었고 그 施設基準에는 學校마다 學校圖書館이 設置되도록 되어 있다.

1967年 10月 26日 大統領令 第 3253號에 따른 學校施設 設備基準令中 學校圖書館에 關係된 部分을 보면 다음과 같다.

(改正前) 第5條(敎舍) ① 교사는 학습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것으로서 이에 적어도 다음과 같은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하나의 시설로 겸용할 수 있다.

1. 학습수에 상당하는 보통교실
2. 각 교과에 필요한 특별교실
3. 자료실
4. 과학실험실
5. 도서실 (6~12 생략)

또 同令 第 16條 및 附則 第 2項의 規定에 따라 文教部令 第 201號로 公布된 "學校年度別 施設 補充計劃에 관한 件"에서 上記 施設은 다음과 같이 年次的으로 하게 되어 있다.

(별표 1) 學校施設 設備基準令 第 16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學校의 年度別 施設 補充計劃

	開校後 1年내	開校後 2年내
令 第16條에 의한 殘餘施設	70%	100%

(별표 2) 學校施設 設備基準令 附則 第 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學校의 年度別 補充計劃

地 域 別	施 設 設 備	1968年	1969年	1970年
釜山市, 仁川市	體育場, 校舍堡地 校舍, 기타 施設, 設備		80%	100%
大田市, 大邱市			100%	
全州市, 光州市			100%	
其他 地域	施設設備		80%	100%

따라서 中學校는 어떠한 學校圖書館을 保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1973年 10월에 發表된 高等學校 學校年度別 施設補充에 관한 件中 改正令 中(별표 2)의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부칙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설 보충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별표 3)

지 역 別	시 설 설 비	1973년	1974년	1975년
도청소재지	령 제 5 조 제 1 항 제 2 호 내지 제 6 호 의 특별교실, 시청 각 교실 및 그 준비실과 도서실	80%	90%	100%
기타지역	"	70%	80%	100%

이 表에 依하면 75年度까지 高等學校는 學校圖書館 設置가 끝나게 되어있다. 그리고 參考의 同年 10 月에 發表된 學校施設 設備基準令(案)에 依하면 前者의 基準令보다 具體的으로 提示되어 있다. 勿論 이 基

(별표 4) 도서실의 열람좌석수 및 비치도서수

구 분	열람좌석수	도 서 수
국민학교	보통교실겸용	1학급당 단행본 100권 이상
중 학교	1학급당 3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2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500권 이상이어야 한다.
고등학교 실업고등 전문학교	1학급당 5석, 다만, 학교마다 20석 이상이어야 한다.	1학급당 단행본 150권 이상, 다만 학교마다 600권 이상이어야 한다.

準은 우리가 바라는 理想的의 學校圖書館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우리의 與件속에서 이렇게나마 提示되었다는 것은 學校圖書館의 새로운 出發의 起點이라고 생각된다. 本道도 平準化에 共通의 범주를 벗어날 수는 없다. 다만 問題는 設置된 學校圖書館中 그 機能이 圖書館다운게 運營될 수 있는 圖書館이 얼마나 되느냐가 問題될 따름이다.

3. 豫算 問題

學校圖書館의 效果的인 運營을 爲한 豫算確保의 問題는 重要한 問題이다. 그래서 現在 運營되고 있는 本道實際問題에서 豫算概要를 알아보기 爲하여 本道 學生 自律的 經費管理指針의 內容을 參考하기로 한다. 이 指針에서는 學生自律的 經費의 定義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學生自律的 經費라 함은 學生들이 참여하는 自律的인 活動내지 保健 또는 研究 등에 所要되는 經費로서 自治會費, 保健體育費 및 圖書費를 말한다.”

우리는 여기서 圖書費를 學生들의 研究에 所要되는 經費로서 自律的 經費속에 包含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指針에 따라 徵收되는 學生自律的 經費의 內譯은 별표 5와 같다.

이 表의 基準으로 高等學校 A등급의 1,000名 單位의 學校에 適用시켰을 때 當該年度 圖書費 購入額은 約 1,100,000원 程度를 確保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指針書는 豫算編成의 原則으로서,

“圖書費歲入金은 圖書費歲出로 금액계상 하여야 하

(별표 5)

학 교 별	등급	73년도 정수한도액	징 수 액 책 정 기 준
중 학교	A	1,850	도서실 전평 20평이상 좌석 50석 이상 보유하고 전용도서 1,000권 이상 보유 운영하는 학교
	B	1,200	전용 도서실이 없는 학교
고등학교	A	1,900	도서실 전평 20평이상 및 좌석 50석이상 보유하고 전용도서 1,000권 이상 보유 운영하는 학교
	B	1,400	전용 도서실이 없는 학교

며 圖書費中 50%은 圖書費로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어 豫算의 半이 圖書購入費로 充當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卷當册代를 普通 1,500원 程度로 보았을 때 이 金額은 年間 約 350卷 程度의 新刊을 購入할 수 있어 年間增加册數를 一人當 0.35卷으로 볼 수 있다는 計算이 된다. 그리고 豫算編成의 項目은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

도서비

1. 잡 금
2. 도서구입비
3. 도서제본비
4. 여 비
5. 수 용 비
6. 연 료 비
7. 특별판공비

그래서 殘餘 豫算은 各項目別로 配分하게 된다.

以上에서 우리는 標集된 어느 學校圖書館의 實際運營의 一面을 보았다.

그러나 73年度 本道 全體學生數에 對한 圖書館運營費는 一人當 149원이란 僅少한 金額에 不過하다. 圖書費가 研究에 所要되는 豫算이라면 研究에 充分한 各種 資料와 새로운 情報가 供給될 수 있도록 하기 爲한 豫算確保의 問題는 學校圖書館 運營에서 解決해야한 時急한 課題中的의 하나이다.

4. 司書教師 問題

本道에서는 66年 4월에 117名의 國民中校 司書教師 短期講習을 實施後 68年부터 年次的으로 200名씩 36時間講習을 通해 全國民學校에 一校一司書教師가 配置되도록 하였으며 71年 7월에는 70名의 中等學校 司書教師講習이 있었다. 그 外에도 延大, 梨大에서 實施한

學校別 司書教師現況

(73年度)

國 民 學 校			中 高 等 學 校		
司 書 數	240時 間以上 이수자 수	120時 間以上 이수자 수	司 書 數	240時 間以上 이수자 수	120時 間以上 이수자 수
204명		1명 15명	117명	28명 25명	11명

司書教師講習에서 35명에 講習履修者가 있으나 現在 國民學校에는 有資格 司書教師가 없고 中等學校에도 1.7%에 司書教師가 擔當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大多數의 學校圖書館은 一般教師들에 依하여 任意로 運營되고 있는 實情이다. 또 68年度에 文敎部에서 配定 하였던 3명의 司書教師(濟高, 仁高, 南高) TO도 現在는 알길이 없다.

[별표 1] 교사자격기준

학교별 자격	중 등 학 교	국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정 교 사 (1 급)				
정 교 사 (2 급)				
준 교 사				
교도교사	1. 중등학교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교도양성을 받은 자 2. 중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교도양성강습을 받은 자 3.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교도양성강습을 받은 자 (참고) 4. 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교육학 교육심리학과 또는 심리학과를 전공하고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교도양성을 받은 자			
사서교사	1. 대학졸업자로서 재학중 도서관학과를 전공하고 소정의 교적과정을 이수한 자 2.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실기교사				
양호교사				

그러나 司書教師의 問題는 더 深刻한데 있다. 卽 그 것은 教育法에 規定된 教師資格基準을 보면 司書教師는 實技教師와 同格으로 取扱되고 있다는 點과 國民學校에서는 有資格教師를 確保하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學校圖書館 司書教師들은 圖書館大會때마다 司書教師 資格基準改正에 對한 建議를 하였던 것이다. 昇

進의 機會가 없는 司書教師資格에 對하여 一線教師들은 外面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忌避하고 있는 實情이며 國民學校教師들은 別個의 資格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與件에서 學校圖書館의 바람직한 運營을 爲해서 有能한 司書教師를 確保하겠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73年度 光州에서 開催된 第12回 全國圖書館大會에서는 “司書教師講習을 研修講習으로”하여 限定된 司書教師의 資格基準을 擴大시켜보려 하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中等學校平準화가 推進됨에 따라 學校마다 學校圖書館이 設置될 것이다. 그러나 船長없는 航海는 航路가 一定치 않은 것과 같이 有能한 司書教師없는 學校圖書館은 學校의 心臟으로서의 學校圖書館 口實을 期待하기는 어렵다.

5. 京畿地區協議會와 學校圖書館

64年 11月 地區協議會는 當時 仁川市立圖書館長이었던 張 仁植 館長을 中心으로 濟物浦高校, 仁川南高校, 仁川高校, 仁一女高校, 江華高校, 松都高校 學校圖書館 등과 司書教師들이 核心멤버가 되어 仁川市立圖書館에서 創立總會를 갖게되었다. 卽後 地區協議會와 京畿道 教育 研究所, 혹은 教育研究院은 學校圖書館育成을 爲한 各種 行事를 可能한 限 많이 展開하였다. 그러나 問題의 核心은 圖書館이란 共通性에 依해서 各級 圖書館이 結束되었으나 提起되는 問題의 性格과 그 問題解決을 爲한 系列이 다르다는 點과 公共圖書館의 行政系列의 二元化와 行政支援이 別로 없었던 地區協議會의 繼續의 人 事業推進은 難關에 부딪치게 되었다. 또 圖書館 責任者나 司書教師들의 轉出은 地區協議會 活動에 많은 制限을 주는 問題이기도 하여 71年度에 第5次 定期總會를 끝으로 現在 活動이 中止된 狀態이다.

重要行事

行 事 名	人 員	實施年度
國民學校 司書教師 實務講習	117名	66年 4月
〃	〃	68年 7月
〃	〃	69年 7月
〃	〃	70年 7月
中等學校 司書教師 講習	70名	71年 8月
中等學校長 學校圖書館세미나	100名	71年 6月
中學校校監 學校圖書館세미나	234名	72年 5月

6. 學校圖書館 運營의 改善問題

學校圖書館運營의 改善을 爲한 問題點은 本道 나뉠데로의 特殊性보다 本道的이다. 따라서 學校圖書館이 갖어야 할 本來의 目的을 分明히 할 때 圖書館마다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缺陷들의 是正을 自覺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學校圖書館의 存在의 意義를 個個 學生들이 自己들의 問題를 發見하고 그 問題의 解明을 爲하여 多樣한 情報源을 檢索活用하여 自身의 思考를 着實히 充足시키려는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學校圖書館을 單純한 Study Hall이나 受驗工夫의 場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制限된 教室授業을 無限으로 擴大하여 學習者自身들을 文化源泉에 接近시켜 Learning to learn 하는 것만이 豫測할 수 없는 變化에 適應할 수 있는 自體能力을 即 “Known”이 아니라 “Knowing”의 힘을 鎔려주는 最善의 한 方法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教育人口의 急激한 膨창과 中等學校平準化에 따라 學校에서는 個人差가 심한 集團을 對하게 되었고 學級人口는 늘어났으나 教師의 數는 限定되어 있다. 이런 狀況에서 個人差에 適應한 授業方法의 摸索이란 여간 어려운 問題가 아니다. 그러나 學校圖書館의 千卷의 適書는 千名의 教師를 뜻하며 教育資料 Center로서의 學校圖書館은 多媒體接近이 可能하다. 우리는 오늘의 大部分의 學校圖書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單純한 讀書의 場이나 工夫房으로 利用되는 極히 消極的인 活用을 止揚하고 直接的이고도 力動的인 教授學習의 場으로서 提供될 수 있도록 學校圖書館은 自身의 問題를 研究 檢討하여 改善에 臨해야겠다.

7. 學校圖書館의 問題點

過去와 같이 學校가 國家의 教育目的에 따라 編輯된 教科書內容을 理解 記憶시키기 위한 方便에 불과할 때 學校圖書館의 問題는 學校教育에 있어서 그다지 큰 比重을 갖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現代社會에 있어서 文化 傳達機關으로서의 學校圖書館은 印刷資料의 形態를 갖고 文化의 教育價値體系를 組織적으로 精選 體系화하는 것이며 이 過程에서 文化를 傳達하는 機能을 갖게 된다. 그리고 急變하는 文化, 社會에서 學校圖書館은 學習을 爲한 情報檢索을 中心으로하는 도큐멘테이션 活動을 要請하게 되었다.

解放後 우리 教育은 最善의 學習指導方法의 摸索을 爲하여 많은 試圖를 하였다. 그러나 오늘 날 定着化된 教授學習方法은 없이 教育現場에는 教師中心의 學習指導가 거의 過去와 다름없이 進行되고 있다. 이 原因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其間의 努力이 教授方法의 改善에 단 끈졌을뿐 學習方法改善을 소홀히 한데 重要한 原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學校圖書館의 問題는 바로 學習의 側面에서 能動的인 自律學習方法과 그리고 人間形成을 爲한 讀書指導의 必要性이 強調되는 現在에 있어 學校圖書館의 存在의 뜻은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런 立場에서 學校圖書館이 當面한 基本的 問題點은

(1) 學校圖書館育成을 爲한 獎學體制의 確立

(2) 效率的인 學校圖書館運營을 爲한 豫算 確保

에 있다. 이 問題解決을 위해 해야할 最善의 方法을 알지 못하고 있다. 다만 바람직한 學校教育은 優秀한 學校圖書館이 있을 때에만 可能하다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오늘의 世界 教育競爭에 있어서의 時代的 要請이란 것만을 알고 있을 따름이다.

II. 忠淸南道의 學校圖書館

權 濼遠(禮山中央高等學校 校長)

1. 학교도서관 설치 현황

도서관에 관심을 가진 이의 숙원이었던 <도서관법>이 1963년 10월 28일에 공포되었고, 2년 후인 1965년 3월 26일에 <도서관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동법 제25조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도서실 또는 도서관을 설립고등전문학교, 초급대학, 대학(교), 교육대학, 사범대학에는 도서관을 두어야 한다.”

라고, <도서관> 설치가 못박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서관이 학교 교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설비>라는데 의견을 모으면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과 거리가 먼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국적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관계로, 필자가 재직 중인 충청남도——타 시도에 비하여 월등하게 앞서 있지도 못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뒤져 있지도 않은 중간 정도의 도——를 예로 들어 보면, 국민학교 643교, 중학교 195교, 고등학교 93교, 도합 931교의 76%인 708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이 통계도, 장서가 일정한 숫자에 이르렀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료의 조적이나 열람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으며, 그 도서관을 교육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세부적인 면까지를 캐고 들어가면 76%에 못 미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임으로만 아무리 교육의 현대화를 부르짖는다 하여도, 맨손으로는 소기의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분필과 칠판단의 학습 지도로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전개나, 학습자의 진전한 교양(教養)을 기를 수는 없지 않은가!

우선 요구되는 것이 각급 학교 책임자의 자성이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 행정 기관의 관심이라 생각된다. 1960년대 초반의 경상남도가 그 좋

은 예이다.

2. 예산문제

<학교도서관>이 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설비임을 인식하고, 훌륭한 도서관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이용시키고자 하여도, 소요되는 <예산>없이 불가능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그 예산이 <표 1>과 같이 빈약하기 짝이 없다.

<표 1> 74년도 예산

학 교 별	국민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합 계
예산 총액	24,900,525	27,961,770	32,370,200	85,232,495
관 당 평균	57,505	234,964	409,749	135,075
한 달 평균	4,792	19,580	34,145	11,255

국민학교는 한달에 4,792원, 1년에 6만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중학교는 한달에 2만원 가량, 1년에 235,000원 정도로, 고등학교는 한달에 3만여원, 1년에 40만원으로 도서관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예산 중에서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도 구독해야 하고, 신간서적도 사야 하며, 카아드, 용지 등의 용품을 사써야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은 경비로는 새로 나오는 신간을 갖출 수도 없고, 낡은 책을 새것으로 바꾸기도 힘들다. 그러니, 자연 <학교도서관>은 옛날 책이 떨어진책으로 보판되는 곳으로 전락해 버리고, 학생들의 인기를 잃어버린다.

참신한 정보원(情報源)이 될 수 없고, 생동(生動)하는 도서관이 못 될 경우, 그 도서관은 있으나마나 한 설비로서, 교사나 학생의 관심 밖에서 먼지만 쌓이게 되지 않겠는가!

더우기, 국민학교 1년 예산이 6만원도 안된다는 것은 어안이 병행할 따름이다. 책도 책 나뉘어가는 하지만 고작 책 40권 정도 살 돈이 1년간 예산이란말인가.

“교육은 국가 백년 대계이다.”

“교육은 70년대의 국운을 좌우한다.”

“한국의 고도 성장은 교육에 의한 인력개발의 결과이다.”

윗말들이 사실이라면, 그토록 중요한 교육을 위하여 그 교육의 기본적인 설비인 도서관을 본 궤도에 올리 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고>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시도비>에서 예산을 세워 뒷받침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중학교는 국민학교의 4배, 고등학교는 7배라는 통계 숫자이기는 하나, 그 예산이 국고 보조는 전무하고, 시·도비도 극히 적

은 액수이며, 대부분이 학생들이 부담하는 <도시비>—엄격히 따지면 자율경비 중 일부—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도비>에서 예산을 보다 많이 배정해 주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이라면, 수익자 부담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염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할 것이다.

3. 사서교사문제

(가) TO문제

5년쯤 전에 문교부에서 <사서교사>의 TO를 30명 정도 배정한 일이 있다.

그 후에 TO가 증가한 일도 없고, 이미 배정된 TO가 잘 지켜지고 있나 확인한 일도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호지 부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TO가 배정된 학교에서도 학교장에 따라서 <도서관>일을 전담토록 조치를 하지 않고, 과중한 수업 시간을 배당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만든 곳도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6조를 보면,

“법 제 6조 제 1항 및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서 직원·사서 교사 또는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① 국민학교에는 1인 이상의 사서 교사나, 1인 이상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

②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그 학생수가 1,200인 이하인 때에는 1인의 사서 교사나 1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며, 그 학생수가 1,200인을 초과할 때에는 2인의 사서 교사나 2인의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둔다.(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포된지 10년이 가까운 오늘까지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비교적 넉넉하고 학교장의 이해가 있는 도시의 큰 학교(공립)의 일부와, 건실한 사립 학교에서 도서관에 직원을 배치하고, 연중 무휴로 전일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된다.

(나) 업무부담문제

<사서 교사>는 사서 교사이기 이전에 일반 교과를 맡을 교과 교사다. 그러므로 도서관 업무 외에 자기 전공에 따른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그렇다고, <표 2>에서와 같이 1주일 동안에 국민학교 28.6시간, 중학교 26.4시간, 고등학교 23.2시간을 맡고서는, 어느 시간에 자료들을 조직화하고, 봉사지

<표 2> 사서교사의 주당 시간수

학 교 별	국민 학교	중 학교	고등학교
주당 시간	28.6시	26.4	23.2

도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도서관이 단순한 도서의 보관하는 곳이라면 1년내내 문을 닫아두어도 그만이고, 틈 있는대로 간간 틀려서 점점이나 하면 되겠지만, 학교가 문을 열고 있는 바에는 교육 과정의 각 영역(領域)의 전개에 따라 그것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사명을 지녔을 뿐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발달적(發達的) 과제를 달성시켜 주기 위하여, 한 시도 실패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도서관을 맡은 사서교사를, 어찌 <서고지기>로 전락시킬 수 있겠는가!

고등학교를 예로 들면, 주당 평균이 23.2시간이고, 최저가 12시간, 최고가 32시간까지 있는데, 32시간을 수업하면서 도서관을 담당한다니 말이 안되는 소리다.

필자 생각으로는 사서교사의 주당 시간으로 12~15시간이 적당량이 아닌가 한다. 너무 많은 것은 물론이나, 전연 안 맡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사란 교단에 서는 것이 본무일 뿐만 아니라, 교단을 통한 대화가 사제 간의 의를 돈독히 하여 주는 구실을 한다. 더우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한편 가르치며 도서관을 맡고 있어야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는다.

또, 학교에 따라서는 수업과 도서관 업무 외에 학급 담임이라든가, 다른 잡무까지를 과하는 수가 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도가 있으며, 너무 많은 일에 시달리다 보면, 짜증이 나서 학생들을 친절히 대해주지 못하게 된다.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정할수록, 사서 교사의 업무는 경감되어 도서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 자질 문제

많은 자료와 훌륭한 시설을 갖추었더라도 그 도서관을 맡아서 운영할 사람을 잘 못 얻으면 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도서관의 성패가 <사서 교사>에게 달려있다 하겠으니, 사서 교사들은

- ① 교육과정·교육계획에 대한 이해
- ② 학습자에 대한 관찰·이해
- ③ 자료·교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 등, 일반 교과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은 물론
- ④ 도서관에 대한 지식·기술을 몸에 지녀야 하고
- ⑤ 이용자 개척과 이용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 ⑥ 자신이 건강한 독서인이어야 하고
- ⑦ 봉사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는 등 사서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자질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기가 어려운 현실

이라면, 그렇게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꾸준한 자기 연수와 더불어 시·도 교육위원회나, 시·군 교육청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도록 계획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사서 교사는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서의 직무를 담당>한 분들에 대한 훈련이 시급하다. 작년도 통계에 의하면, 중학교의 24.3%, 고등학교의 58.1%에 사서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그중에 자격증 없는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니, 중학교의 80%, 고등학교의 50% 가량이 <사서 교사 강습>을 받을 대상자라고 추정된다.

필자가 교육위원회에 제직했을 때, 사서 교사 강습을 실시한 일이 있는데, 50명 정원을 다 채워본 일이 별로 없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적은 탓도 있지만, 강습을 이수해 보았자 상급 자격증을 타는 것도 아니요, 진로가 열리는 것도 아닌 데다, <사서 교생> (교생을 자칭한다는 뜻) 만 하게 되니, 젊은 교사들에게 인기가 없는 까닭이다.

그러한 현실이기는 하나, 시·도별로 강습을 자주 열어 무자격 사서 교사를 일소해야 한다.

(라) 진로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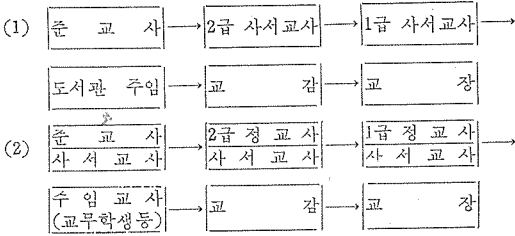
학교도서관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서 교사>의 진로가 잘 트이어 있으면, 그 만큼 사기가 올라 운영열을 쏟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침체를 면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타 교과의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사서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서 전임으로 임명될 경우, 기초 호봉이 2급으로 되어 있는 모순이 있을 뿐더러, 주임 제도가 생긴 후로는 교무주임·학생주임·연구주임·교도주임·체육주임·실과주임(실업 교교에 한함)·과학주임으로 승진이 되면, 도서관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원하는 사람도 적은 형편에 겨우 숙련이 되고, 중견 교사로서 한창 활동할 만한 하게 되면 도서관을 떠나게 되니 인력 수급상 큰 손실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 준교사가 사서 강습을 받으면 2급 사서 교사로, 일반 2급 정교사가 사서 강습을 받으면 1급 사서 교사가 되게 하고, <도서관 주임>제도를 새로 만들어, 1급 사서 교사 중에서 그 임무를 맡게 하여야만, 숙련된 사서 교사들이 오랫동안 도서관에 머물러 봉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상위 주임들은 교감·교장으로 승진되는 기회가 다른 주임들과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2)라인을 (1)과 같이 뜯어 고쳐야, 사서 교사가 판 걱정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학교 사서> (도서관학과 출신으로 학교도서관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의 진로 문제다. 지금 제도로는 이 <학교 사서> 들은 만년 이 일에 종사할 수 있을 뿐으로, 진로가 완전히 막혀 있다. 사서 교사의 수가 태반 부족하고, 사서 교사보다 더욱 전문적인 기술을 익힌 이 분들을 학교도서관에서 오래 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와 같이 도서관 주임, 교감,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겠다.

교과 교사들은 몇 시간씩 보충 수업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된 지도수당을 받고 있는데, 하루 3,4시간씩 도서관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들에게, 수당은 못할 망정 <진로>조차 열어 주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4. 이용 지도문제

많은 예산과 정력을 쏟아 도서관을 만들었다면, 그 도서관이 100% 활용되도록 이끌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그 방법 중의 하나로 <학교도서관 이용지도>를 배놓을 수 없다.

각급 학교에 설치된 도서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시키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전개할 수 있게 되며 인쇄 배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대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하여서는 도서관 이용법에 숙달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서 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몇몇 학교 이외에서는 등한히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그 원인이

① 이용지도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막론하고, 교육과정 중에 정착되지 못하고, 각 교과에 흩어져 명백탄을 유지하고 있으며,

② 따라서 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관심 가진 지도자가 있을 경우, 교과 시간·학급 활동·학교 행사 등에 기생(寄生)할 수 있고,

③ 이용 지도를 실시하라는 정책이 수립되었다손 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아는 지도자가 많지 않다는 애로가 있으며,

④ 실제 지도에 임할 경우, 학교 급별, 같은 학교의 학년차에 맞는 자료 (교과서 혹은 지도교사의 참고서 등)의 빈곤, 등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제 있는 학교장이 도서관 시간을 특설하고, 열성적인 사서교사가 이용 지도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대량 정보 시대에 대처하는 교육이 될 수 없다.

이 이용 지도가 <교육과정>에 정립되어야 하고, 시간 배당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문교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하겠다.

5. 지구협의회와 학교도서관부회와의 상호 협력 관계

우리 도서관인들은 <도서관법>에 근거를 둔 <한국도서관협회> 깃발 아래 모여 있고, 그 산하 단체로 각 시도에는 지구 협의회, 중앙에는 관종별 조직의 하나로 학교도서관부회가 있다.

대도시일수록, 지구 협의회에 많은 수의 대학도서관·공공도서관·특수도서관이 참여하고 있을 것이나, 지방에 갈수록 대학·공공·특수 도서관이 몇 안되고 대부분이 학교도서관이므로 지구협의회와 학교도서관부회는 이명동인(異名同人)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충청남도의 예를 들면, 지구협의회가 조직된 지 14년이 되고, 그 동안 추진한 사업이 교장 세미나, 교감 세미나, 사서교사 세미나, 학교도서관 연구 발표회, 사서교사 강습회, 각종 좌담회 등 수 없이 많으나 전부가 학교도서관 분야 뿐이고,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위한 일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재직 중인 동지들의 진폭적인 협조를 얻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독서 인구의 저변 확대> <도서관의 발전> <도서관인의 자질 향상> 등은, 관종별을 초월한 공통의 과제인 까닭이라 하겠다.

6. 학교도서관 운영상의 문제

(가) 조직상의 문제

앞에서 사서교사의 진로 문제로 언급한 바 있거니와, 주임 제도가 생기고, 거기에 <도서관 주임>이 빠진 관계로, 도서관은 학교에 따라서 교무과에 속하기

도 하고, 연구과에 속하기도 하게 되어, 결재에 번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뿐더러, 이해 없는 상급자라면 2중 3중의 브레이크만 거는 결과가 되어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서교사의 사기 진작면에서나, 도서관 발전면에서도, <도서관 주임>제도를 만들어 도서관이 독립된 기구로서 조직이 되어야 하고, 숙련된 사서 교사가 그 책임을 맡아야 한다.

(나) 도서선정의 문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서교사들은 1주에 26시간이나 수업을 맡아야 하고, 그 외에 도서관 일을 보아야 하는 현실인 까닭에, 도서 구입을 할 경우 차분히 내용을 검토할 시간 여유가 없다.

기왕 도서관협회 사업으로 서지분과위원회에서 <선정 도서 목록>을 만들어 도협월보에 게재하고 있으니, 수고하는 제제에 좀 더 수고하여, 국민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6단계 정도로 내용의 난이도를 밝혀주었으면, 일선 교사들의 일손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 목록 작성 문제

전임으로 사서교사를 배치해 주고, 사무 직원이 그를 돕게 하여도 <목록>을 갖추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하물며, 20여 시간씩 수업을 맡고 사무직원도 없는 도서관에서 언제 목록을 비치하라!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실정일수록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같은 규모가 큰 도서관에서 <인쇄 목록>을 만들어서 희망자에게 배부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주로 학교 도서관을 상대로 만들면 분류도 KDC로 통일할 수도 있고, 관수도 상당수에 달하므로 가능하지 않나 생각된다. 도서관협회에서 생산하여 회원들에게 실비로 나누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다.

(라) 평준화에 따른 문제

중학교는 전국적으로 무시험 진학이 실시되었고, 고등학교도 서울·부산에 이어 금년도에 대구·광주·인천에서 <학군제> 진학이 실시 되었다.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교원의 평준화와 시설의 평준화라 할 수 있는데, 시설 중에는 도서관도 들어 있음은 물론이다.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의 평준화는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립 고등학교는 재단에 통고만 하면 될지 모르나, 공립 고등학교는 그렇지 못하니 탈이나, 예산 배정없이 교구를 어떻게 갖추란 말인가? 덜어놓고 하잘 것이 아니라, 그 실태를 엄밀히 조사 분석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만 명실 공히 평준화는 이룩될 것이다.

7. 학교도서관법 제정 문제

1963년 10월에 공포된 <도서관법>에는 사서 직원의 배치, 학교도서관의 설치, 직원, 일반 이용에의 제공 등 <학교도서관>에 관한 조항이 4개밖에 없으며, <대학교서관>과 <학교도서관>이 혼동된 흠이 있고, <도서관법 시행령>에도, 도서관 시설 기준과 사서교사의 배치 기준의 2개 항목이 들어 있기는 하나, 시설 기준을 규정한 제 2조 제 2항을 보면,

“법 제25조 제2항의 학교도서관의 시설 기준은 따로 작급 학교의 시설 기준령에 의한다.”
라고 알맹이가 쏙 빠져 있다.

이렇게 허술한 법의 뒷받침으로는 <학교도서관>을 발전시키기에 미흡하므로, <학교도서관법> <학교도서관법 시행령> <학교도서관 시설기준령> <사서교사 강습규정> <사서교사 직무 규정> 등을 새로 제정해야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설립자가 소요 경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도서관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으니, 손질할 때도 되었고, 경제 개발이 우리의 당면 과제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으나, 경제적인 고도 성장을 지속시키고 정신적인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100억원 정도를 과감하게 투자하여 학교도서관을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 백년 대계>를 반석 위에 올려 놓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학교도서관의 육성 발전은 곧 한국교육의 육성 발전이고, 교육의 발전은 선진국 대열에 낀 발전된 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Ⅲ. 全羅北道의 學校圖書館

田 俊燮(前全州高等學校 司書教師)

1. 學校圖書館 設置現況

全羅北道の 道勢概況은 面積面에서 全國의 8.2%, 人口面에서 7.7%, 初中高 學生數는 68萬餘名으로 8%의 比率을 나타내고 있는 弱勢의 道로서 行政區域은 3市 13個郡에 初中高校 853個校 中 國民學校 595個校 中學校 171個校 高等學校 87個校로서 圖書館 設置率은 1974年 2月末 現在 國民學校 298個校로서 約 50% 中學校 89個校로 52% 高等學校 57個校로 約 62%로서 全體比率은 853個中 144個校의 圖書館(室) 設置率은 約 52%로 過半數의 設置率을 나타내고 있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設置率이 낮은 國民學

校가 過半數를 넘고 있어 1971年度 集計의 23.6%의 比率에 比하면 3個年에 100%의 設置增加를 나타내고 있다. 보다 實際에 있어서는 校長室 複道의 一部 등 讀書 코너를 마련 館外貸出을 통한 一週 一冊 읽기 運動이 全羅北道 敎委의 讀書指針으로 着實히 運營되고 있어 모든 學校가 圖書館에 對한 慾求是 所期의 目的을 百分 發揮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 圖書館 專門人的 아쉬움은 學校의 基本的 施設로서의 義務化를 갈망하는 立場에서 생각하면 學校圖書館은 奉仕機能外에 教育的 機能을 前提하는데 있다. 學校 나름대로 읽을거리를 確保하여 그것을 제공만하는 것이 아니라 各種 圖書館 施設과 諸資料의 利用訓練을 수반하는 教室, 또는 實習場으로서의 學校 施設의 中心的 役割이 要求되는 것이며 單純히 學級文庫나 讀書 코너는 아무리 資料에 對한 滿足한 利用으로 一次의인 目的을 達成한다 하여도 하루 하루 數百 萬種의 諸資料中 自己가 必要로하는 貴重한 資料를 利用하여야할 많은 學生들에게 學校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다하였다고는 볼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中高校 設置率에 있어서 先進道에 比해 그 設置率이 현저한 落後性을 볼 수 있으나 各學校 나름대로 地域社會에 對한 奉仕와 學生들에 對한 慾求를 충족시켜, 數十卷의 藏書를 死藏하고 있는 一部 學校에 比해 運營面에서 實務를 견우고 있는 많은 學校의 모습은 볼 때 現在の 餘件으로서 그렇게 比관만할 立場도 아님을 부연하여 둔다. 위 통계는 藏書 1,000卷 以上과 獨立된 圖書館(室)만을 對象으로 하였다.

2. 豫算 問題

한 家庭의 살림이나 國家의 運營에 있어 그 要諦는 豫算 問題와 결부된다.

아무리 알뜰한 살림이나 훌륭한 政策이 立案 되었다 하여도 基本豫算이 없인 속수무책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나라의 學校圖書館 運動이 日淺한 탓과 政府의 經濟建設面에 置重한 點도 있겠지만 立法過程이나 政策的인 面에서 너무나 度外視 된 것 같다. 勿論 學校育成會가 있고 學生自律에 經費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年間 몇 萬圓의 더부살이 豫算은 年間 몇 種類의 定期刊行物 代金도 못되는 것이 學校圖書館 大部分의 實情이다. 그래서 우리 實務者들은 그 財源 捻出方法을 모색하기 위하여 신출귀몰한 가지 가지 方法이 全國 방방곡곡에 創案 續出 되기도 하였으니 보리 이삭 줍기 껌품 수집 근로봉사 도서기증 운동 등 그 根本對策이 없는 묘안은 한낫 미봉책에 불과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여진 相當量의 圖書는 1年만 利用하

고 보면 半 休紙나 다름없는 圖書群이 되고 만다. 圖書館 實務者이면 누구나 一流 製本士가 되어야하며 修理가 거듭되는중 북 포켓과 標題紙 만은 잘 保管하여야 圖書亡失에 對한 責任은 다 할 수 있는 훌륭한 司書가 되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圖書館의 利用價値는 저어지고 學生들의 圖書館에 對한 態度는 一變하며 結果의으로 自習室化 되어가는 現象이 濃厚하여 진다.

以上 現實에 對한 曰可曰否 보다 財源 捻出에 對한 私見을 들어보면 日益高度로 多邊化하고 系烈化 하여 가는 現代社會에 있어 圖書館의 使命이 天文學의 資料의 效果의인 檢索과 利用이 前提된다고 볼 때 受益者 負擔이라도 하여 圖書館 教育이 本 궤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學生 1人當 圖書平均 價格이 1冊代金 範圍內에서 負擔시켜 圖書館 獨立豫算으로 育成하여 執行할 수 있는 文教部 例規라도 制定되었으면 한다. 가뜩이나 確保된 豫算을 執行하는데도 資料의 選擇 購入 整理利用 保管등 高度의 資質이 要求되는 司書職 奉仕者로서의 使命을 다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하겠다.

다음으로 現行 財源 捻出方法은 各市道가 大同小異 하다고 보지만 本道의 경우 獨立建物の 圖書館의 경우 몇 百圓을 學生 自律經費에 포함시켜 執行하고 있으며 餘他の 圖書館(室)은 自律費 및 育成會費에서 몇 萬圓의 豫算이 執行되고 있어 現狀대로 라면 黃牛一毛格으로 그 前途는 암담하기만 하다.

3. 司書敎師 問題

司書 苦生하는 敎師로 익살스럽게 불리는 本道의 司書敎師의 現況은 今年 2月末 統計에 依하면 初等에 5名 中等에 22名 高等에 28名으로 計 55名이다. 全國集計 5%에도 未達된 現況이고 前述한 圖書館 設置校 444個校에 55名과 對比하면 11% 정도의 司書敎師가 勤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한가지로서 全北道의 學校圖書館 運營現況을 환히 엿볼 수 있다. 그나마도 1964年과 67年兩年에 걸친 60餘名의 司書敎師 講習은 全北 學校圖書館 運動의 發火點이기도 하였으나 다음에서 論하려는 法的 保障과 個個人的 身上問題로 20餘名의 司書敎師가 승진 또는 一般 敎科에로 轉向하여 司書敎師의 人的 資源에 결함이 되고 있다. 또한 圖書館 전담교인사 司書敎師 TO가 確定되어 全北道에 3名이 配置되었으나 現在는 1名만이 전담으로 勤務하고 있는 實情으로 볼 때 보다 制度的인 뒷바침이 어렵다.

다음에 適當 授業時間을 살펴보면 1名의 전담 司書敎師를 포함한 高等學校의 경우 담당자 46名이 800餘

시간을 담당하고 있으며 中學校의 경우 45名이 900餘時間으로 平均 4校時 程度의 授業時間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問題는 많은 專擔司書教師가 圖書館 育成에 心血을 기울여야 겠지만 보다 根本的인 問題는 全혀 圖書館 業務에 經驗이 없는 教師나 職員이 運營하는 學校圖書館이다. 有資格 司書教師의 경우 配當된 授業時間의 혜택과 職務內容의 파악에서 오는 能率 등으로 圖書館運營의 能率化를 期하고 있으나 그 外의 圖書館 運營狀態는 어떻게는가?

大部分의 教師는 適當 30餘 時間부터 50時間 가까운 授業時間과 學事 事務를 處理하다 보면 機械가 아닌 以上 판곳에 餘念을 들수 없다. 또한 他職務에 比해 高度의 資質을 要하고 休日마저 없는 司書教師의 職務를 달가롭게 받아들여 奉仕할 교사는 거의 없다. 이에 有能한 司書職員의 訓練과 人員의 固定配置가 要請된다. 그러나 地方의 경우 一個 司書職員의 受講機會는 하늘에 별따기이며 몇몇 有資格 職員도 學校의 自體豫算이 없으면 退職하여야 하는 實情으로 司書職員의 定員이 確保되어야 하겠다.

山間部 學校에 가보면 남아 빠진 雜誌 附錄의 1冊이라도 읽겠다는 어린 童心은 우리 圖書館人의 자극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教育界의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끝으로 地區協議會의 育成으로 圖書館職員의 確保와 資質向上에 寄與할 수 있는 位置가 하루 속히 이룩되어 現在의 施設이나 資料만이라도 훌륭한 職員을 通한 圖書館의 利用이 學校 圖書館의 最急 當面問題라 생각된다.

다음에 司書教師 個個人的 身上問題로 전보, 研修成積 教務分掌中 位置問題가 言及 되겠으나 位置問題와 전보는 3名의 專任 司書教師中 一般教師로 2名이 轉向하고 1名만이 現職에 머무르고 있어 論外가 되겠으며 研修成積面을 살펴 보면 一般科目의 例外가 되어 그 成積이 반영 되지 않는 點은 圖書館協會 發行의 全國圖書館 實態調查에서 指摘한 特殊教師인 간호교사의 同一系列로 取扱하여 昇進의 期會가 부여 되어 있지 않는 點은 一般教師보다 高等의 資格基準을 要求하고 있으면서 도리혀 格下된 현실 모순은 司書教師의 人的 確保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

다음에 經濟的인 手當面을 고려하여 볼 때 一般教師의 補充指導費에서 오는 反對給付와 比較할 때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생기는 點이다. 基本 授業時間을 말으면 圖書館에서 奉仕하여야 하는 時日은 補充指導費와 거리가 멀다. 아무리 圖書館人으로서 奉仕精神에 투철하고 教育理念에 그 使命을 다 하는 教師일 망정 많은 時日이 흘러감에 따라 自己 自身の 立場을 되돌아 볼

때 하나의 회의감을 아니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年中無休 資料의 管理面에서 오는 複雜性 前述한 亡失圖書의 處理問題, 어느 司書教師의 경우 몇卷의 亡失圖書를 배상하고 學校로 轉出하여야 하는 쓰라림을 당한 이야기를 들었을때 많은 時間과 努力을 경주하여 圖書館界 草創期의 礎石이 되기엔 너무나 쓰라린 開拓者이다.

4. 學校圖書館 利用指導 問題

圖書館 設立의 三大要件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는 餘件에서 利用指導問題가 論議되는 것은 逆說의이긴 하지만 本道의 集計에 依하면 司書教師가 勤務하고 있는 學校에 있어서는 年初 2~3 校時的 오리엔테이션을 大部分 實施하고 있으며 8~10個 校時를 計劃的으로 實施하고 있는 學校가 2個校로서 圖書館 利用指導 問題는 소외되고 있는 實情이다. 많은 中高校의 경우 하루 9~10時間의 進學爲主의 學習은 來日의 산 教育活動에 도움을 주지 못할 뿐더러 健全한 社會人으로서 公共施設의 健全한 利用 등 참다운 民主市民으로서의 基本教育을 缺하고 있다 하겠다. 다음으로 計劃面에선 文教當局의 장학 지칭과도 密接한 關聯이 있어 一個 門外漢은 言及하기가 甚難 問題이나 私見을 들어 보면 國語科 一般社會 國民倫理 등 關聯科目에 讀書法 讀書 노트 圖書의 選擇 諸資料의 利用法 도서관 利用法 公共施設로서의 圖書館과 其他 文化施設의 利用을 다루어 來日의 文化市民으로서의 資質教育을 시켜 淸한 文化遺産의 발굴과 研究는 圖書館 利用教育에서 出發하여야 하겠다.

5. 地區協議會와 學校圖書館部會와의 相互 協力關係

地區協議會와 部會의 關係는 앞뒤 수레 바퀴와 같이 不可分의 關係로서 어느 一方이 없어도 存立할 수 없는 絕對的인 存在이다. 더욱 活動이 미약한 地方 일수록 그 關係는 더욱 重要하다고 본다. 全羅北道地區協議會는 1962年 第 4回 全國圖書館大會가 全北으로 決定되어 그 準備作業이 한창 무르익어갈 무렵 出帆하여 10餘年이 經過되었다. 他道에 比해 落後된 圖書館 活動을 地區協議會를 母體로 새로히 발돋움하며 他道에 뒤지지 않을 모두의 念願도 야망껏 없이 겨우 外形의 인 면모만이 이어갈 뿐이다. 그렇다고 文教當局에서도 微溫的인 學校圖書館의 育成策이 地區協議會 그 自體가 直接的으로 學校圖書館 育成에 영향을 못 주겠지만 우리 圖書館人의 收益과 하나의 求心點으로서의 位置는 重大한 意義를 지니고 있으나 이를 活用하지 못하

는 우리의 處地가 안타까울 뿐이다.

地區協議會 發足 當時 道內 10餘名의 有資格 司書教師나 司書가 公共 大學 學校圖書館의 運營에 힘써 오던 중 地區協議會의 명칭下에 司書教師 資格 講習을 유치, 60餘名의 有資格 司書教師를 配出하여 全北 學校圖書館界의 새로운 活力素가 되었다. 學校圖書館部會의 前身으로 全州市內 司書教師 協議會의 結成으로 圖書館 運營의 改善策과 資料의 選擇 相互情報 交換 등 有機的이고 發展的인 모임이 1969年 學校圖書館部會의 母體가 되었다.

1970年 첫 事業으로 地區協議會와 共同으로 全北 教育研究院이 主管한 上級資格取得을 爲한 特殊講習 120時間을 100名을 對象으로 圖書館 教育을 地區協議會 任員을 主軸으로한 講師陣이 實施하였으며 研究院 圖書館 分科研究委員으로 學校圖書館運營과 育成에 對한 全般的인 研究立案이 學校圖書館 進路에 對한 指針이 되었었다.

其後 1972年度 待望의 全國學校圖書館 部會의 創立으로 學校圖書館 모두의 所望이 이룩되나 하였던 期待도 現 우리의 經濟力과 社會의 諸般 條件은 보다 더한 忍耐과 努力의 代價를 더 要求하고 있다 보다.

특히 여기에 指摘하고 싶은 일은 本道의 司書會에서 學校圖書館部會와 地區協議會 發展을 爲한 指導助言은 全北圖書館界의 里程碑이기도 하다.

6. 學校圖書館 運營의 改善點

以上 各項에서 指摘한 問題點이 解決되지 않는限 問題點은 改善點으로 存在하겠지만 어느 地方의 한 學校의 例를 들어보자. 量的으로 손색이 없는 2,000餘卷의 장서를 所藏하고 있으면서 整理되지 않은 圖書를 音樂室 한 귀퉁이에 保管하고 있는 것을 살펴 볼 機會가 있었다. 5~6種의 重複된 全集類는 그 全集이 그렇게 名作은 아니었으며 定刊 不定刊物과 雜紙여 잡다운 管理者를 찾고 있었다. 大部分의 學校圖書館이 幾百 幾千의 圖書를 確保 保管에 급급하거나 館外貸出을 통한 讀書行爲에 끝이고 있으니 圖書館 本然의 任務에 到達하기 까지는 요원하다.

아직도 過半數에 가까운 各級學校들이 獨立된 圖書室 간판 하나를 못다는 現實은 各級學校의 平準化 作業에도 많은 차질을 招來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에 一般 教室과 겸용에 있어서의 問題點을 들어 보면 管理面이나 利用에 있어서 利用者의 資料에의 接近性 施設의 特殊性(施設이 完成되었을 경우) 등 運營의 妙로써만은 解決할 수 없는 難題를 안고 있는 것이다. 結論的으로 學校圖書館 運營의 改善點은 圖書館

三大要件이 提示하듯이 그 要諦는 大學圖書館처럼 一定額의 基本豫算이 確保되어 有能한 司書職員의 所信을 다 할 수는 날이 하루 속히 돌아 오기를 바랄 뿐이다.

7. 全北地區協議會의 問題

첫째 會의 機能의 正常化가 前提될 때 몇 사람의 힘만으로 어느 團體를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가뜰이나 어려운 處地의 圖書館人 우리 會員은 보다 積極的인 參與로 우리의 權益과 進路를 개척하여야 할 求心體가 地區協議會임을 自覺하여야 하겠다.

둘째 어느 機關이나 團體가 活動하는데는 豫算問題가 수반 되는데 各級 團體會員이나 個人會員은 스스로 會員으로서의 權利 義務를 다하여야 하겠으며 地方自治團體나 教育委員會의 有關機關에서의 地區協議會의 育成에 對한 보다 더한 物心 兩面의 지원으로 地域社會圖書館 運動의 母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全員 스스로의 所屬感과 參與意識이 百分 發揮되어 一致 團結로 뭉칠 때 地區協議會는 育成 될 것이며 社會로부터 圖書館人의 새로운 認識과 理解心을 불러 이룰 수 있는 것이다.

Ⅲ. 全羅南道의 學校圖書館

崔 兌定(光州第一高等學校 司書教師)

1. 서 론

한국의 학교도서관이 教育的 發展과 더불어 모뎀지기 발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發展하지 못한 重要한 理由는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요사이 처럼 한국의 학교도서관 발전이 요망되는 때는 없으리라고 여진다. 그것은 특히 高等學校까지 평準化 되어가는 마당에 있어서라. 먼저 서두에서 問題점 몇가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는 첫째로 종래까지의 학교 교육이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교육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만 보더라도 국정 또는 검인정으로 두 가지 교과서를 사용하여 교육하는 교육형태였으며, 또한 한정된 교과서 이외의 도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도 않았거나와 탐탁하게도 여기지를 않았을 뿐 아니라 교육이란 교실안에서 학생들을 가둬서 넣어둔채 흑판만을 사용하여 무조건 주입시키는 型이 가장 잘하는 方法으로 여겼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들의 祖上들이 서당에서 교육했던 방법이 그러했고, 일제 36년

동안의 敎育이 특히 그러했다. 倭政時代敎育은 植民地 政策을 達成하기 위해서 좁은 教室안에 많은 학생을 넣고 학생들도 自己 책상이나 의자에서 한정된 時間동안 勞動 할 수 조차 없도록 꼭 짜인 좁은 教室을 使用케 했던 것이다. 이는 그들의 計略대로 植民地 敎育을 수 행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 되어진다. 그런데 海방 以後 現在는 어떤가? 마찬 가지다. 일제의 方式 그대로를 답습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올바른 敎育인 것 처럼 그릇 인식하고 있다. 美國敎育의 스로강에 “學校도서관은 학교의 심장부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 하겠는가?

한 인간이 심장이 멈추었다면 그는 곧 死者이지 산 사람은 아닐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기능 발휘가 제대로 안되는 학교는 곧 中병에 걸린 인간에 비유 할 수 있으리라. 가뜰이나 정서면이 걸릴된 이 마당에 틀에 딱 찬 학교 教室 수업보다 자기힘에 의해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도장——도서관을 확장하고 선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문제 라고 생각한다. 한 국가의 文化의 價値를 측정 하는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文化

創造의 틀을 쌓는데 棟樑材가 되는 人才育成은 精神文化創造를 비롯한 제반 문화창조에 최선의 역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동량제가 좁은 教室속에서만 어떻게 만들어 질 수 있단 말인가? 語不成說이다. 現在처럼 教室수업 위주에다가 각 학교마다 형식적인 도서관(실)이 갖추어진 마당에서 어찌 創造의 두뇌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外形的 文化정책이 아닌 내면적 文化정책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政策樹立을 해야 할 것 같다. 작은 예일런지 모른다. 국립중앙 도서관의 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많은 돈을 들여서 現代式 박물관은 지었다.(여기서 박물관을 지은 것이 잘못이거나 박물관의 존재가치에 대해 云云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文化所産의 價値面에서 무엇보다도 잘한 일이다. 그러나 도서관은 이에 따르지 못한다는 것인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되어있는 책이 국보급 이상의 귀중도서나 희귀 도서가 얼마든지 있다. 더구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구적인 사람들에게 요람적인 이 도서관을 도심지에서 交通이 불편한 南山 어린이 회관으로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이 옮겨야 한다는 說이 있었

학교도서관 설치기준

나라	한		국	미	국	일	본
자	문교부학교시설설비기준령 (1973. 9. 14 대통령령 제6854호)		문교부, 도의 학교 도서관 육성 계획(1974. 2. 21)	한국도서관협회 제정 학교도서관 운영지침 (1965)	standards for school library programs (A.S.L.A.) (1960)	학교도서관기준 (1953. 2) 일본 文部省	
구	제5조(校舍) ① 교사는 학습과 보 건위생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에는 적어도 다음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b) 도서실 도서실의 열람 좌석수 및 비치도서의 수의 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별표 3)		방 칩 1. 1교 1도서관(실)이 설치를 추진한다 2. 육성방안 3. 학교도서관의 시설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최저기준으로 하고 학교 실정과 여건에 따라 적정한 규모를 갖추도록 한다(5장) 1. 건물 나) 학교도서관은 도서관 전용의 시설이 라야 한다. 전용도서관(실)을 설치할 수 있을 경우에는 教室 겸용 도서관을 설치 할 수도 있다. 다) 학교도서관 열람실의 면적은 좌석 1 석당 1.5m ² 이상이 되게 한다.	국 민 학 교		① 학생수 200명 이하 일때 한 학급을 수용 할 수 있는 좌석 ② 학생수 200~550명 일때 최소로, 45~55 석 ③ 학생수 551명일때 학생수의 10% 좌석 ④ 교사를 위해서 학교도서관의 한부분은 로서의 독립된 방 또는 학교의 판방 ⑤ 보조자료를 두기위 하여 독립된 방	① 제적아동 학생수의 10%의 인원을 수용 할 수 있는 열람실 (면적은 수용정원 1 인당 2.18m ² 가 필요 함) ② 열람실 이외에 사무실 연구실을 두고 여유가 있을 때는 시청각실을 둔다.
	구분	열람 좌석수		열람실	① 학급당 4인 의 좌석 확보(1 인당 좌석수에 대한 면적을 1.32m ²) (0.4명)		
	국민 학교	보통교실 겸용		실 문 장 지 실	① 30학급 이하 일때 14.85m ² (4.5명) ② 31학급 이상 일때 19.8m ² (6명)		
	중 학 교	1학급당 3석 다만 학교마다 20 석 이상이어야 한다		정 리 실	① 30학급 이하 일때 13.2m ² (4명) ② 30학급 이상 일때 16.5m ² (5명)		
모	고 등 학 교	1학급당 5석 다만 학교마다 20 석 이상이어야 한다					

을 때 그 위치에 '대해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大 서울市民뿐만 아니라 韓國國民이 아끼고 기르며 애용할 수 있는 곳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點에서 였다. 그런데 낙착된 곳은 南山의 어린이회관이다. 물론 어린이회관은 어린이 대공원 안으로 더 좋고 더 크게 만들어 옮겨 간다지만 그러나 어른들이 어린이를 쫓아 내는 것 같아 우선 기분이 좋은 것 만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도서를 보관하고 이를 적절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마련된 서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회관을 개조하여 쓰라는 것이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

“꼭마른 자에 물 한그릇”의 어구에 비유한다면 모르지만 씁쓸한 이야기다. 좀 더 시민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많은 시민이 애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왜 신축하지 못한단 말인가. 큰 뿔덩만을 신축하고 아파트만을 보기 좋게 건축하는 것이 문화민족의 긍지를 갖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內實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切感하여야 될 줄 안다. 위와 같은 문제 점이 곧 학교도서관에도 미치고 있다. 各級 學校에는 도서실을 설치해야 한다(도서관법 제25조) 라고 名文의 規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現在는 어떤가? 전국적으로 보아서 대부분의 학교(특히 초, 중)는 교실을 二重으로 利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업을 위한 교실로 因해서 거의 도서실이 없는 형편이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필요 부분만 발췌)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학교도서관은 貴重本이나 회귀本도 아닌 그저 다 낡은 도서를 보관하고 있는 도서관관창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의 重要한 原因은 도서관의 경비문제이다.

② 학교도서관의 경비

文敎部. 道의 학교도서관 육성계획(1974. 2. 21) 제5장을 보면

※ 문교부. 도의 학교도서관 육성계획 제5장
(Ⅲ) 학교도서관의 경비
※ 문교부 道의 학교도서관 육성계획 제6장 학교도서관 경비

1. 경비 염출방법
학교 운영비, 육성회비, 학생자율적 경비 등에서 최대한의 도서관 경비를 염출한다.
2. 경비산출
도서관 연간 경상비는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학생 1인당 최저 150원을 중고등 학교에 있어서는 최저 350원을 확보하도록 한다.

인건비 및 시설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경비배분

경상 경비는 대략 다음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좋다.

경비 배분 기준

도 서 비	신문잡지비	도서수리비	잡 비	계
80%	8%	8%	4%	100%

4. 경비지출

경비는 적절한 연간 사용계획에 의거하여 적기에 지출하되 반드시 사서교사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그 경비 염출은 학생자율적 경비에서 겨우 50~350원을 도서비로 쓸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도서비 가운데는 운영비(인건비, 수용비 제반 一切의 비용 포함)가운데 실지로 도서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우는 50%도 되지 않는다. 이는 분명히 上記한 문교부 도서관 육성계획 제 6장 2항에 크게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처럼 하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보니 이 또한 어찌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모름지기 도서비 만은 현실화 되어야 한다.(남부금 항목에 독립시켜 징수) 수혜자 부담원칙에서도 이는 결코 타당한 것이다, 현재의 책값을 계산해 보자. 단행본 권당 평균 1,200원 꼴이다. 이와 같이 비싼 책을 만들어 내는 것도 문제지만(실지 내용보다 장식비가 훨씬 많음) 이런 책을 100萬원 예산이라고 했을 때 구입할 수 있는 도서의 양은 1,000권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예산의 현실화가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2. 전라남도 학교도서관 설치현황

全羅南道의 학교도서관은 光州市 順天市 木浦市 여수시 등 都市中心의 학교에만 集中되어 있는 실정이다.(표 1 참조)

국민학교 총수 967개교 중학교수 261개교 고등학교 106개교 도합 1,343개의 학교가 있다. 현의상 도서관 통계는 중 고등 학교만 숫자적으로 살펴 봤는데 367개교중 그나마 도서관의 시설을 갖추고 형태나마 차린 학교가 123개교 그것도 거의 전부가 光州를 中心으로 其他의 3個市에 集中되어 있다. 이 외에 교실 또는 特別教室로서 겸용으로 쓰고 있는 학교수가 203개교이나 이는 형식적으로 책 보관소에 불과한 상태이며 그나마

(표 1)

학교종류	설립구분	학교수	학생수	도서관시설			보유장서	학생1인당 비	
				전용	겸용	파석수			
국민학교	국립	2	1,781						
	공립	970	802,569						
	사립	4	1,588						
중학교	공립	196	154,235	59	162	12,647	307,611	1.46%	
	사립	65	57,774						
고등학교	인문계	공립	18	19,858	64	41	12,734	236,128	2.84%
		사립	15	14,351					
	실업계	공립	43	22,400					
		사립	30	26,925					

참고 ①학교수, 학생수는 1974년도 대한교육연감에 의함.

② 도서관 시설항은 1974년도 전남교육위원회 통계에 의함.

41개교는 도서관의 설치를 업무에도 두지 못하고 있다. 중·고등학교가 이렇진데 국민학교는 不問可知하다. 한 국민학교 당국자의 이야기로는 우선 교실이 不足한 처지에 특별교실을 생각하기란 어렵다고 고개를 흔드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학교시설을 갖출 때(신설교인가시)도서관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법제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간절하다. 특히 도서지방이 많아 문화의 시설이 빈약한 全南道의 실정으로 봐서 도서관의 필요성은 절대적인데 그와 반대적인 현상이니 가슴 아픈 일이다. 또 여기에 부기하여 두교자 함은 학생 1인당 장서 보유량이 중학교가 1.4책 꼴이요 고등학교가 2.84책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전기한 바 대로 光州市를 비롯한 3個市의 장서량을 제외 시키면 0.5책 꼴도 되지 않는다. 특히 光州市內의 中高校가 보유하고 있는 장서량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런 실태에서 살펴 보면 도서관의 시설면이나 장서면에서 얼마나 뒤져 있는지를 짐작 할 수 있겠고 도서관의 시설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가를 능히 짐작 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2. 全南地方의 도서관비는 학생 자율적 경비에서 抽出하고 있다. 국민학교는 최저 년 150원 이상을 中高等學校에서는 350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전부 다르다. 이 도서비로서 校誌 校報(학교신문) 등의 代金으로 使用하다 보면 신

간도서를 구입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거의 전 학교가 그렇다. 財源抽出의 方法은 수혜자 原則에 입각하여 도서관 운영비 또는 도서구입비의 陽性化를 당국에서는 절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서 구입비의 現實化로 靈肉이 共히 成長하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창조의 힘을 스스로 개척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고 하는 것은 교실에서의 지식을 전달받는 그것보다 몇갑절 더 重要한 문제인가는 가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여긴다.

3. 사서교사

全南地區의 사서교사는 有資格者가 比較的 많은 편이다. 그러나 사서교사를 전담발령 즉 T.O.를 배정해 주지 않음으로서 훌륭한 기술자를 養成해 두고서도 그 기능 발휘를 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표 2참조.)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光州市에 전담발령자 5명 木浦市에 4명 순천시에 3명 여수시에 2명 그리고 군에는 장흥군에 1명 등 도합 15명 이다. 그러나 이들 중 전담 발령자들도 일반교사 以上으로 과중한 수업량을 맡고 있다. 적어도 도서관법 제 26조(직원) 및 文教部 道の 학교도서관 육성계획 제 3장 ①(註①)

註① ※ 도서관法 26조 (직원)

문교부 道の 학교도서관 육성계획 제 3장 1항 → 도서관의 직무를 담당할 직원으로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어야 한다.

※ 문교부, 도의 학교도서관 육성계획 제 3장 ②항 전임 또는 겸임의 사서교사는 240시간 이상의 사서교사 강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 文教部 道の 학교도서관 육성계획 제 3장 3항 겸임사서의 週당 수업시간은 가급적 10시간 以內로 한다.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학습지도 및 학습사무 이외의 교무는 면제한다.

(표 2)

사서자격증 소유자 총수	전담발령자		도서관 (실) 담당교사					
	공립	사립	전담	겸임	유자격자	무자격자	담당시수	
136 (공·사립 포함)	15	12	중	22	223	17	228	
			고	27	76	43(공)27(사)16	60	13.5시간 (전담)

1. 전담발령자중 공립은 고등학교에 한함.
2. 도서관 담당교사 전담발령자는 고교 15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사립에 해당함.
3. 위 통계는 1974년도 전담교육위원회 통계에 의함.

에따라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려면 전남의 有資格敎師를 전원 배치하여도 어떤 면에서는 不足한 立場에 놓이게 된다. 흔히 사서교사는 아주 편안한 職종의 敎사로 誤認하는 수가 많다. 그 理由는 負擔을 올릴 때 쌓아 올리는 벽돌은 可視的인 것이어서 오늘 몇미터 내일은 몇미터 하고 말할 수 있지만 도서관 에서 업무란 知的인 것이어서 形態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사서교사는 도서관 의 운영과 봉사활동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실무자로서 학교도서관의 中추적인 存在이며 専門적인 능력과 자격을 구비하여 매우 복잡다기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음 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無知나 오해를 불식 시킬 수 있는 最善의 方法은 당국에서 각종강습시 반드시 도서관 운영의 기초 만이라도 시간을 배당해 주어서 全敎師가 도서관 운영에 깊은 이해로서 적극 협조 할 수 있는 길을 모색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서교사의 대우 문제이다. 각종 주임 敎사가 많은데 왜 사서주임은 법제화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1급 정교사 자격증 이상을 가지고 사서교사 전담발령자 또는 2급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이 경과한 자가 사서교사 자격 강습을 이수하고 사서교사로 전담발령을 받을 시는 사서주임의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 大學正規의 도서관 학과 출신자가 일반敎사와 같은 정규과정의 연한과 敎직강습을 이수하면 당연히 사서주임이 될 수 있도록 進路를 터 주어야 한다. 말로만 民主主義敎育을 찾지 말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도서관을 사무직원 이 간단히 해 치 수 있다는 思考方式은 버려야 한다. 特別 初 中學校에 轉任된 사서나 正式사서교사가 없으므로 학교 도서관 發展에 支障이 많다는 것은 학교도서관에 조금 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이다. 적어도 年 2회 정도로 자격강습이 不能하면 일반 교양강습 이라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고 사서교사 들도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敎育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써 現在 有能한 사서교사 들이 빨리 도서관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有能한 司書敎師를 學校圖書館에서

일 할 수 있도록 對策을 講究하는 것은 敎育立國을 위해 重要한 問題이다.

4. 학교도서관 이용지도 문제

학교도서관의 現況은 도서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그 理由를 몇 가지 간추려 보면 첫째 학교수업이 많음으로써 도서관을 정상적으로 利用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성장하는 학생 들의 건장을 위해서도 敎育과정 中에 명시된 敎과학습 시간을 초과하는 병폐는 조속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학교도서관의 대부분이 폐가식 또는 반개 가식으로 운영되어 집으로써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大部分의 자료가 거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 이어서 많은 학생들에게서 관심밖 으로 떨어져 가고 있으며, 도서관의 기능마저도 이해 못하게 되어가고 있다. 셋째로 학교도서관의 이용지도 또는 전체 학생에 대한 독서지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실시한다 하더라도 도서관에 대한 오리엔 테이션 정도를 신입학생들에게 겨우 신학기초 1,2시간 정도 실시함으로써 이들에게 정확히 주지 시킬 수 있는 기간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신입학생에 게는 연중 주 1회 정도의 시간을 배정하여 정상적인 독 서지도 를 실시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누차 이 야기 했지만 敎실수업만이 공부요 주입식敎育으로 시 험에 대비하는 것만이 최상책으로 생각하는 풍토는 하루 속히 지양되고 학생 스스로가 자기들의 문제를 개척 해 갈수 있는 창조적 개척적 심미적 탐구적 마음가짐을 가질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종합적 敎育의 도장 곧 도서관이 모든 敎育과 직결 될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 우리 敎育은 언제나 敎사중심의 敎育에서 탈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5. 지구협의회와 학교도서관부회

우리 道는 學校도서관부회를 조직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體制의 多元化 보다는 일사불란한 조직체로 名實共히 도서관 이념달성에 매진하는 길만이 최선인 라고 여겼기 때문이요 현재 光州를 제외한 各 市郡에

地區協議會를 조직 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道의 地區協議會보다 성실하고 알찬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다. 사실상 지구협의회 의 구성원을 보면 公共 6 대학 5 기가 학교도서관으로 실질적인 핵심은 학교도서관이 그 중요 위치를 점하고 있다. 우리 道에 있어서 公共 大學 도서관 등과 學校도서관의 유대-협조 관계는 어느 道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리라고 확신한다. 도서관의 불모지대라고 일컫는 전남지방에 도서관의 부흥확장을 위해 지난 7월 22일 전남대학교 도서관에서 광주지구 초 중 고등학교장 및 各市郡 教育廳 도서관담당 학사들을 초청하여 제 1회 광주지구 교장단 도서관 세미나를 개최 하였던 바 (全羅南道 教育위원회 후원) 그 성과는 의형적으로 측정 할 수 없었지만 하루 종일의 세미나 뒤에도 지칠 줄 모르는 질의 응답시에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깊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고 미래의 발전을 굳게 약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모임 등을 비롯 각종 행사시에 우리 전남은 公共이다 大學이다 학교도서관이다를 區別않고 합심협력 진보 발전적으로 처리해 가고 있다. 또 地區協議會의 理事陣이 거의 학교도서관의 도서관 담당 교사들이 맡고 있는 실정이다.

6. 학교도서관의 운영 개선점

학교도서관의 운영개선점을 말하기 전에 학교도서관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간략히 그 줄거리만 간추려 보기로 하자. 학교도서관은 학교에 부설되거나 또는 부설되지 않아도 학교교육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약한 존재가 아니고 학교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모든 교육활동에 봉사하고 또는 교육운동은 학교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학교도서관을 이용 시킴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학교도서관은 모든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최대한으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기능을 크게 나누어 보면 대략 다음의 11종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
| 학교도서관의 기능 | (1) 교육목적면 | ① 여러층의 이용자에 대한 봉사기관 |
| | | ② 계반 자료이용 및 독서지도 기관 |
| | | ③ 모든 학습에 대한 협조 기관 |
| | (2) 교육기능면 | ① 학습활동의 종합적인 센터 |
| | | ② 정서함양(독서포함)의 센터 |
| | | ③ 효과있는 자료의 제공센터 |
| | | ④ 새로운 정보의 제공센터 |
| | | ⑤ 학생들의 낙원 |
| | (3) 교육활동면 | ① 독서활동의 집중 및 지도센터 |
| | | ② 보면서 읽고 읽으면서 보고 듣고 알려 이해하는 센터 |
| | | ③ 창조적 활동의 센터 |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을 때 과연 현재의 학교도서관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는가 비교 검토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목적면에서는 겨우 이용자에 대한 봉사기관의 역할을, 교육기능면에서 겨우 신문 잡지만으로서 정보의 제공을, 교육활동면에서는 독서활동의 집중센터로서의 명목만을 유지한다고 보면 필자 개인의 편협한 생각일까? 그러면 왜 이처럼 기능발휘를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서론에서도 말했듯이 획기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수립과 이를 위한人材양성과 예산의 뒷받침이 없이는 단시일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비단 우리 道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럴 때 전국의 도서관인은 무엇인가 우리의 할일을 똑바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7. 결 론

냉정히 생각해 볼때 지금 우리 나라의 학교도서관은 교육적 이념이 상실되어 있는 것 만은 틀림이 없다. 학교도서관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증축으로서 교육적인 이념형성이 병행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로 현재와 같은 내용이 불충실하고 무목적적인 학교도서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학교 도서관의 기능면을 신장시키지 못하고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학교도서관은 사회의 사설독서실의 구실 밖에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교육이니 창조적 교육이니 하고 구두선인양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냉정히 고려했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교육정책적인 면에서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이념구성과 더불어 본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구와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나 연구가 강구되어 질 때 학교도서관은 학교의 심장부로서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 될 것이요.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됨으로서 우리 나라의 학교발전이 경제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며, 학생들도 육체의 성장과 더불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면서 구김살 없는 교양인, 지식인이 되어 국가가 요구하는 미래의 동량제가 되도록 양성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되는 새마을 운동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활발한 학교도서관의 활동을 그 지역사회 새마을 운동에 정신적인 밑거름을 주게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정신적인 밑거름은 훗날 알찬 수확을 약속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시점 어느면으로 보나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묵과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라는 점을 누구나가 다 깊이 명심하여야 되겠다.